

호서대 재학생 집필 '동물보건사 임상실습지침서' 주목

유튜브와 연동 동영상으로도...현장감 넘치면서도 실용적

김영길 kimy2908@naver.com

등록 2025.01.23 10:26:09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 동물보건복지학과 재학생들이 동물병원 현장 실습을 혁신적으로 재정립한 '동물보건사 임상실습지침서'를 출간했다.

이 지침서는 동물보건 분야 대학생이 직접 집필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학생들은 기존 동물병원 실무 관련 도서와 간호학 실습 매뉴얼을 참고하고, 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를 반영해 현장감 넘치고 실용적인 내용을 담아냈다.

특히 호서대 동물보건복지학과와 영상학부 크루(CREW)와 함께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개 채혈보정법, 알약 투여보정법 등 동물보건사가 반드시 숙지해야 될 25개 주요 실습 내용을 QR 코드를 통해 유튜브와 연동시켰다.

여기에 초대 한국동물병원협회장을 지낸 홍하일 호서대 교수 감수, 진승현 문화영상학부 교수 협력을 더해 완성도를 높였다.

지침서를 기획한 김충현 호서대 동물보건복지학과 교수는 "언제 어디서나 이 생생한 현장 경험을 접할 수 있다. 실습 교육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 지침서가 학생 뿐 아니라 미래 동물보건사에게 길잡이 역할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